

2024. 4. 29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29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

관광정책과장

이창현

02-2133-2805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관광정책팀장

이재화

02-2133-2807

아간관광 랜드마크 될 '서울의 달' 6월 운영 위해 여의도공원 설치 착수

- 6월 말 운영 목표로 29일(월)부터 기반공사 시작... '시민안전' 최우선으로 진행
- 설치 대상지에 있던 수목 200여 주, 공원 내 이식해 자연 생태·공원 환경 보전
- 시 "유희와 휴식을 동시에 경험하는 서울의 새 명물 '서울의 달' 기대해 주시기"

- 서울시가 오는 6월, 여의도 하늘을 떠다닐 보름달 형태 계류식 가스(헬륨)기구 '서울의 달' 운영을 앞두고 29일(월)부터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에서 설치 작업에 들어간다. 설치는 약 2달간 이뤄질 예정으로, 시는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.
 -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에 설치되는 '서울의 달'은 헬륨가스의 부력을 이용해 열기구처럼 비행하는 가스(헬륨)기구다. 지면의 케이블과 연결된 가스(헬륨)기구는 최대 150m까지 수직 비행하며, 기존 열기구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특징이다.
- '서울의 달'은 6월 중 완공될 예정이며, 이후 약 10일간의 시범 비행을 거쳐 사전에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.
 - 시는 기구 설치에 앞서 기초 토목공사 및 수목 이식작업을 먼저 진

행한다. 기반 공사 이후에는 현재 프랑스에서 제작 중인 ‘서울의 달’을 옮겨와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걸친 후 설치에 착수한다.

- 시는 여의도공원 이용객 불편이나 인근 지역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.

□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은 ▲비행 가능 구역 ▲사생활 침해 여부 ▲침수 피해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된 장소로, 시는 특히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를 심도 있게 고려했다.

- ‘서울의 달’이 설치되는 여의도한강공원 인근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, 주거지역까지는 약 260미터의 직선거리를 보유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나 일조권 침해 가능성은 적다.

□ 또한 시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수목을 공원 내 다른 장소로 이식, 한강공원의 자연 생태를 훼손하지 않음과 동시에 서울의 달이 설치된 이후에도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방해받지 않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경관 및 공원 환경을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.

- 설치 대상지에 있던 교목 약 17주, 관목 약 200주는 공원 내 다른 장소로 이식할 예정이다.

□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“‘서울의 달’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‘안전 관리’를 최우선 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의 불편 또한 최소화하겠다”며 “유희와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명물 ‘서울의 달’에 많은 기대를 보내주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24. 1~6월(설치) / '24년 6월~(운영)
- 위치/면적 : 여의도공원(영등포구 여의도동 2) / 3,305㎡(1,000평)
- 사업내용 : 서울만의 매력인 한강과 도심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계류식 가스
기구 설치·운영
 - 달모양의 헬륨가스기구를 제작·설치하여 한강중심 야간관광 랜드마크로 조성
 - 최대 150M(건물 50층) 높이에서 비행하며 고층빌딩 속 매력적인 서울야경 체험
- 추진주체 : 서울시(설치) / 서울관광재단(운영)
- 추진방법 : 공공위탁 및 관리위탁
- 사업예산 : 4,667백만원(설치 3,389백만원, 운영 1,279백만원)



<‘서울의 달’ 예상 조감도>



<‘서울의 달’ 위치도>